

kiri Weekly

2015.9.7 제349호

포커스

세계 보험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글로벌 이슈

자동차보험산업의 이슈와 전망

정신질환의 증가추세와 보험산업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세계 보험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이소양 연구원

요약

- 2014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2013년보다 3%p 높은 6% 성장한 가운데 선진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신흥국보다 7%p 낮은 5% 성장에 그침. 미국과 유럽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선진국 보험산업의 성장성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신흥국에 진출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지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음. 한편, 중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자국 보험산업의 팽창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면서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순위가 크게 상승함. 향후 미국과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의 신흥국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선진국 보험회사간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맥킨지(McKinsey & Company)의 조사¹⁾에 따르면 2014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6% 증가한 3조 8,010억 유로를 기록함.

- 2014년 세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대비 6%, 5% 증가한 1조 8,300억 유로, 1조 1,750억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8% 증가한 7,960억 유로였음.²⁾
- 2014년 미주지역, EMEA지역³⁾, 아·태지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각각 1조 5,230억 유로, 1조 2,510억 유로, 1조 270억 유로로 전년대비 6%, 5%, 9% 증가하였음.
 - 구체적으로 볼 때, 신흥아시아⁴⁾(15%) 및 라틴아메리카(13%)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선진아시아⁵⁾(7%), 북미(5%), 서유럽(5%), 일본(4%), 동유럽(1%), 아프리카(-1%)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1) McKinsey & Company(2015, 5), "Global Insurance Insights-A detailed analysis of trends that shape the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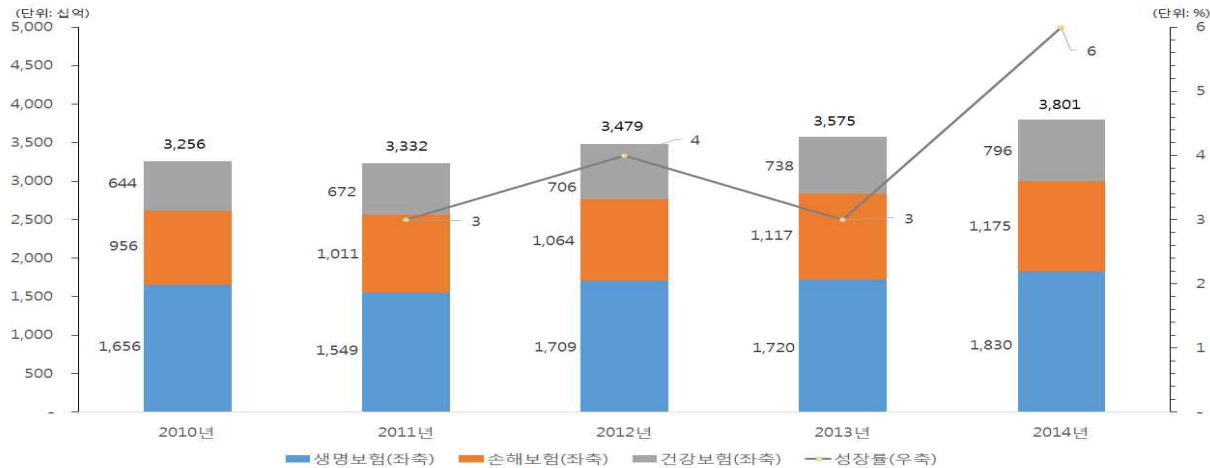
2) 맥킨지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의 기준에 따라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를 집계함.

3) EMEA지역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함.

4) 신흥아시아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동을 포함함.

5) 선진아시아는 호주,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및 대만을 포함함.

〈그림 1〉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 추이(유로)



자료: McKinsey & Company, 재구성.

■ 2014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성장률은 2013년보다 3%p 높아졌는데 이는 생명보험 실적 개선 및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서유럽, 신흥아시아 국가의 견고한 성장세 및 북미, 선진아시아, 일본의 회복세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3년(1%)보다 5%p 높아진 수준임.
- 2014년 세계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북미와 신흥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견고한 성장세로 전년대비 8% 성장하였는데 이는 2013년(5%)보다 3%p 확대된 수준임.
- 2014년 세계 손해보험의 경우 선진국 성장세 확대가 신흥국 성장 둔화를 상쇄하면서 2013년과 같은 5% 증가하였음.

〈표 1〉 2013년 및 2014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률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서유럽	6	7	1	2	3	8
신흥아시아	8	14	4	5	24	31
북미	-8	3	3	3	23	23
선진아시아	0	9	15	13	4	3
일본	-5	4	20	19	7	6
라틴 아메리카	7	3	8	8	10	10
동유럽	-2	0	5	1	6	9
아프리카	14	-6	4	3	-	-
전세계	1	6	5	5	5	8

자료: McKinsey & Company, 재구성.

■ 2014년 선진국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생명보험 성장 호조로 2013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신흥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14년 선진국 보험산업 성장률은 북미, 선진아시아 및 일본 생명보험의 성장으로 2013년(2%)에 비해 3%p 높아졌으나 5%에 그침.
 - 2014년 북미 생명보험 성장률은 미국 단체생명보험 성장세 회복 및 개인연금 고성장, 캐나다 유니버설보험 성장세 확대로 2013년 -8%에서 3%로 상승하였음.
 - 2014년 선진아시아 국가 생명보험 성장률은 호주 연금시장 성장세 확대, 한국 단체생명보험 고성장, 대만 변액보험 성장세 확대로 2013년 0%에서 9%로 높아졌음.
 - 2014년 일본 생명보험 성장률은 예정이율 인하 효과 소멸로 2013년 -5%에서 4%로 상승하였음.
- 반면 2014년 신흥국 보험산업 성장률은 신흥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고성장에 힘입어 2013년과 같은 12%로 나타났음.
 - 2014년 중국 및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아시아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라틴아메리카는 각각 전년대비 15%, 13% 성장하였음.

■ 미국과 유럽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선진국 수입보험료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신흥국에 진출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지 보험시장에서 차지한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음.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보험산업 성장성도 둔화되고 있는 반면 신흥국의 경우 견고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고성장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선진국 보험산업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5% 이하 수준에 그친 반면 신흥시장 보험산업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15%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선진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전세계 보험시장에서 차지한 비중도 83%로 2010년에 비해 3%p 하락한 반면 신흥국 보험산업 비중은 2010년 14%에서 17%로 상승하였음.
- 미국과 유럽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대표적인 신흥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및 러시아 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현지의 본토 보험회사들에 비해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아직까지 높지 않음.
 - 해외자본의 독자적인 보험회사 설립이 허용된 브라질과 러시아의 경우 해외자본 독자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기준 각각 21%, 11%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해외자본의 독자적인 보험회사 설립이 금지된 인도의 경우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기준 30%이었음.

- 해외자본의 독자적인 생명보험회사 설립이 금지된 중국의 경우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기준 5%에 불과하였음.

■ 한편, 중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자국 보험산업의 팽창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면서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순위가 크게 상승함.

- 스위스 리(Swiss Re)에 따르면 2008~2014년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CAGR는 15.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같은 동안 전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CAGR(1.9%)보다 13.3%p 높은 수준임.
 -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2008년 1,408억 달러에서 2014년 3,284억 달러로 성장하였음.
- China Life 및 PICC는 미국과 유럽의 대형 보험회사들과 달리 중국 국내시장에 치중하고 있지만 수입보험료가 각각 2008년 432억 달러, 149억 달러에서 2014년 541억 달러, 41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13년 China Life 및 PICC는 각각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 및 15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계 15위 이내 보험회사 중 미국과 유럽 보험회사는 2008년 12개에서 10개로 감소하였음.

〈표 2〉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보험회사 순위(유로)

2008			2013		
순위	회사	국가	순위	회사	국가
1	Axa	프랑스	1	Axa	프랑스
2	Japan Post	일본	2	United Health	미국
3	Generali	이탈리아	3	Allianz	독일
4	Allianz	독일	4	Generali	이탈리아
5	United Health	미국	5	Munich Re	독일
6	AIG	미국	6	Anthem	미국
7	ING	네덜란드	7	China Life	중국
8	Anthem	미국	8	Zenkyoren	일본
9	Zenkyoren	일본	9	Japan Post	일본
10	Nippon Life	일본	10	Kaiser	미국
11	Munich Re	독일	11	State Farm	미국
12	Aviva	영국	12	Prudential UK	영국
13	State Farm	미국	13	Zurich	스위스
14	Kaiser	미국	14	Nippon Life	일본
15	Zurich	스위스	15	PICC	중국

자료: McKinsey & Company, 재구성.

■ 향후 미국과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의 신흥국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선진국 보험회사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맥킨지는 일본을 제외한 아·태지역과 라틴아메리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2013년부터 매년 10.7%씩 증가하여 2020년 1조 3,860억 유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신흥국 보험산업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는 미국과 유럽의 대형 보험회사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됨.
 - 앞서 2014년 미국 Metlife, Liberty Mutual Insurance Group은 각각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보험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프랑스 Axa는 중국에서 현지 보험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바 있음.
 - 최근 영국 로이드는 신흥국 보험료 비중을 2025년까지 2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⁶⁾
- 미국과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의 해외진출은 신흥국에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흥국에서 외국계 보험회사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말까지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는 50개사에 달했지만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 5%에 불과하였음.

■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들은 진출 대상국의 보험시장 성장 현황과 경쟁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는 진출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임. **kiri**

6) 김진역(2014. 3),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신흥국진출 현황 및 전망」, 보험연구원.